

교회소식 및 광고

1.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11주),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3. 말씀 나눔: 매일 보내는 말씀 묵상을 따라 기도하면서 참여 바랍니다.
4. **사순절**: 성회 수요일(2/22)부터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히 기도하며 보냅니다. ***담임목사**: Tampa 50주년 예배 참석 후 귀환.
5. 성경통독: 제 5차 **도전 100일 성경통독**이 은혜 중에 진행(33일) 됩니다.
6. 기도회: 화요일 7시 중보 기도회, 3/15(수) 8시 Zoom 기도회(사도행전)
7. **점심**: 조은미 사모님께서 접대하심. **강단미화**: 박동희 권사님 가정에서 드림.
8. **일광절약**: 이번 주일부터 일광절약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김반석 목사(445)208-3527 **

** 기도 상담,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박종님 전도사(267)265-0369 **

** 성가대, 찬양팀 문의--반주자: 임현선 집사(215)869-7632 **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일 헌금 봉헌 (\$ 1,549.00)

십 일 조: 김반석,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유혜영, 이진원 유금자,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조우형 이혜련.

감 사: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경원, 이수덕, 이승택 이승희, 전필주,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조성배 심우경.

주일헌금: 김반석, 박병기,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선교헌금(7Days 감사): 유혜영, 전필주,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특 별:

2023년 교회 목표

**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

1. 도미니카 (신현재) 지교회 개척 및 전도
2. 흑 해 (유동윤) 선교센터 건립, 사역자 양성
3. 콜롬비아 (김선훈) 사역자 재교육, 태권도
4. 피 지 (이성일) 신학교 교육, 원주민 전도

제15권 11호 2023년 3월 12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필라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기도회	저녁 8:00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엘림 찬양단
- 합심기도 Prayer 다 같 이
-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 같 이
- ♣ 송 영 Spiritual Song 다 같 이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유혜영 권사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단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5:3-11 다 같 이
- 설 교 Sermon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조병우 목사
- 봉헌찬송 Hymn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다 같 이
- ♣ 헌금봉헌 Offering 찬송가 213장 (4절) 다 같 이
-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조병우 목사


♣ 표에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시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밤 8:00 (ZOOM)

화~토 새벽 6:00

이번 주 섬김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 담당	안내, 헌금위원
이번주	유혜영 권사	조병우 목사	조은미 사모	조민연 박종님
다음주	박종님 전도사	박종님 전도사	유금자 권사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의 증거”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습니다(눅10:29-35). 이 이야기의 결론에서 주님은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대답이 무엇이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36-37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 가운데 친절한 말 한마디, 우정으로 꺼안아 주는 팔, 혹은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과 연민을 보이고, 또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눈길로...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 누구인가를 감사하면서 이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영원한 선의 옹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팔에 팔을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When Jesus was asked, "Who is my neighbor?" He told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Luke 10:29-35). At the conclusion of this story, the Lord asked, "Which of these three do you think was neighbor to him who fell among the thieves?" The answer? "He who showed mercy on him" (vv.36-37). Who in our "neighborhood" needs a kind word, an arm of friendship, or an act of encouragement today?

Jesus calls us to show love and compassion to others as we love God with all our heart, and our neighbor as ourselves. When we look at our neighbor with appreciative eyes, . . . with gratitude for who that person truly is, then we seem to be arm in arm with Christ Jesus, the advocate of eternal good. Your love for your neighbor is proof of your love for God.